

지구온난화 현상이 몰고올 위기

존 낸스의 「우리 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외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 제임스 한슨 소장은 1988년 6월 미의회 상원청문회에서 당시 쟁점이 되고 있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했다. 그가 증언에 나선 문제는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기후가 상승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여름에 느껴지는 열기와 가뭄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온실효과는 발견되고 있으며 그것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그의 증언은 곧 「가뭄은 지구온난화의 산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신문들의 1면 머릿기사로 장식됐다. 이 보도는 또한 한슨 소장이 속해 있는 항공우주국내에서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최근 미국 모로우사에 의해 출간된 「우리 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What goes up : The Global Assault in Our Atmospher)라는 책에서 저자인 존 낸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온존층 파괴가 초래할 피해에 대한 견해를 펴려하고 있다. 그는 책 서두에서 15년간 과학자, 정치가 그리고 기업관계자들이 논쟁을 벌인 끝에 클로로플루오로카본(CFC)이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온존층을 파괴한다는 결론에 도달, CFC를 폐기키로 합의한 몬트리얼의정서가 어떻게 도출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이해되고 있는 점과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흥미로운 과학자들의 시각과 과학적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이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더딘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는 CFC가 온존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경험을 통해 온존의 상실이 초래할 위험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 그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문체를 통해 이같은 위험을 둘러싼 논쟁과 실수가 얼마나 위험이 따르는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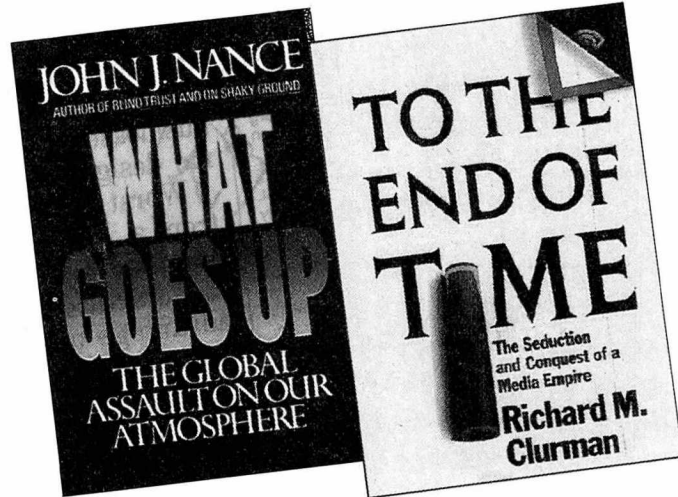
저자가 ‘온존전쟁’이라고 명명한 논쟁은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어빈대학 화학교수 두사람이 CFC가 사용된 후 어떤 현상을 야기 시키는가를 설명한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작됐

다. 그들이 발표한 이론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은 CFC가 서서히 공기중에 퍼져 클로린 원자를 방출하면서 분해되며 이 원자들이 온존을 파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온존층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온존의 소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의 주장은 즉각적으로 화학산업계와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1985년에 가셔아 비로소 이들의 이론은 지지자를 얻게 됐다. 그것은 영국 안타르크틱 연구소의 조 파먼이 발표한 매년 겨울 북극상공 온존층에 구멍이 나타난다는 최초의 자료였다. 파먼이 수집한 자료는 어빈대학교수가 예측한 것과 같은 지속적인 소멸은 아니었으나 그가 1981년 처음 밝혀낸 소량의 소멸과는 달리 1984년 겨울동안 무려 40%나 줄어든 것으로 그들의 이론을 입증하는 획기적인 증거였다.

이같은 파먼의 보고서는 과학계를 다시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다. 북극 대기를 조사한 다른 그룹들은 온존층이 감소했다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미 우주항공국 고다드 우주발사센터의 과학자들은 서둘러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장치는 온존의 소멸을 기록하였으나 컴퓨터는 정상에서 훨씬 벗어난 것은 해독치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과학자들이 그들이 발견해낸 것을 어떻게 증명했으며 북극상공에서의 온존의 소멸을 발견해내고 클로린이 온존을 파괴하는 과정을 밝혀내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론자와 산업계는 이같은 발견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하나부터 열까지 의견 대립을 나타냈다. 화학산업계는 끊임없이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의견대립에 미국정부는 어중간한 태도를 취했다.

저자는 오늘날 온난화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CFC를 둘러싼 논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에 대해 과학자들과 산업계, 그리고 정부사이에는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저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이다. 산업계와 관련 이익단체들은 적절한 대처가 그들의 이익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계는 적절한 대처가 불가피하게 된



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관련법을 마련하는 데 알레르기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온존층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은 지구온난화가 갑자기, 그리고 확실하게 예상치 않은 상태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시작됐다는 점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임의 종말을 위하여」

1923년에 탄생, 한때 한국에서도 지성인들의 필독서로 여겨지기도 했던 미국의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타임」.

그러나 오늘날 「타임」은 옛명성을 상실한 채 거대한 공포로 변신, 언론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기업으로서 이윤획득에 몰두하고 있어 뜻있는 미국인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타임」지의 창간 당시 편집장이었으며 설립자이기도 했던 헨리 루스는 “오늘날처럼 거대화되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결코 타임 발간의 주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스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타임」을 창간했는지라도 이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미국에서 기업 매수 합병의 붐이 크게 일었던 지난 80년대에 들어 저널리즘을 목표로

성립된 「타임」은 흥행, 오락업종이었던 워너 커뮤니케이션을 무려 1백40억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였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타임워너’는 세계 최대의 흥행회사로 군림하고 있다. 물론 창간목적과는 상당히 벗어나 몸집은 계속 엄청나게 불어났으며 수익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시문&슈스터사가 펴낸 「「타임」의 종말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책은 「타임」의 이같은 변신을 흥미진진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1975년 「타임」을 떠나기까지 20년동안 기자로 일했던 리차드 클러만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온 「타임」의 몸집 부풀리기가 어떻게 가능했으며 누가 해냈는가등 내부 스토리를 과감하게 들춰내고 있다.

20년간 「타임」의 밥을 먹은 저자에게 이 세계적인 거대기업은 모든 것을 드러내 주었으며 저자는 원하는 사람은 모두 만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픈곳까지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어 미국 서점가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타임」측에서 이 책이 나오자 저자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이 책이 세계적인 흥행기업 ‘타임워너’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그가 명성을 날리면 1950년대 「타임」지 기사처럼 야심차고 확산에 가득찬 문체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 독자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초년기자시절 저자는 「타임」에서 놀라운 기사작성과 정력적인 취재활동으로 유명했다.

저자는 미국경기가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갔

던 80년대 「타임」의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경영대권을 잡았던 덕 먼로 회장이 펼쳤던 안이한 경영태도를 '미친듯한 혼란의 시대'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당시에 덕 먼로 회장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급급, 「타임」이 자랑하던 '창조적인 에너지로 분출된 힘찬 정열'을 사그러뜨렸다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 그 대가로 물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흥행회사로 놀라운 변신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저자는 「타임」의 경영진들이 참신하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던 워너 커뮤니케이션의 스티브 로스 회장을 함부로 다루기를 어려워한 결과 그가 때때로 친지 중 한사람이 구속되었던 금융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결국 규명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는 기업매수합병 거래가 성사될 경우 토스 회장과 「타임」의 일부 최고경영진들이 엄청난 댛돈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타임」 창간정신과는 크게 달라진 '멀티미디어, 다국적시대에 걸맞는 전세계적인 출판, 비디오 기업화'라는 '타임워너'의 대전략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는 크게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저자는 '타임워너'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했고 이익의 11%를 차지했던 단행본을 비롯한 출판사업부문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가에 대해 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저자는 「타임」사가 자랑하던 「라이프」지와 「타임」지의 편집방침이 변경된 것과 새로운 독자층을 겨

냥한 현재의 경영방침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지 크게 걱정하고 있다. 저자는 90년도 「타임」지 정기구독자수가 4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타임」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자가 제기하고 있는 이같은 문제의 핵심은 「타임」이 그동안 쌓은 모든 재능과 자원 그리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보다 중대한 뉴스를 보도할 수 없다면 누가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저자는 자본과 이익을 증시하는 풍조에서 뜻있는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보다 큰 문제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타임」 경영자들은 간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타임워너'가 전파매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잡지들도 슈퍼마켓에서 잘 팔려나가는 흥미본위의 잡지로 변질시켜버리고 말 것이라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저자의 이같은 우려는 자본의 논리에 순치되어가는 한국언론, 출판계의 앞날을 걱정하게 해준다는 점과 그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3세계와의 대결」

'소련사회주의의 붕괴'는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했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이 '팍스 아메리카나'

의 재건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세계의 현병'으로서 미국의 지위는 불구대천의 적 소련제국주의가 소멸한 이상,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슷할 정도로 강력하게 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전략계획 지침 초안」은 미국을 '유일한 슈퍼파워'에서 '유엔을 통한 집단안전보장'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도 그와같이 "천지를 진동시킬만한 공포의 대상은 없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역사가인 가브리엘 콜코 박사는 최근 펴낸 「제3세계와의 대결」이라는 저서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위 소련블럭의 붕괴에 의해 세계는 새로운 안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출구없는 불안정화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콜코 박사는 "1945년부터 수년전까지의 국제사회는 여러가지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더 큰 위협성을 안고 있다. 그것은 소련파위의 붕괴를 확인하고 더이상 공산주의 진영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 미국이 국제정치무대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역할이 이전보다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콜코 박사가 주장하는 더 큰 위협성은 과연 무엇일까.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 있

어서 최대의 불안정 요소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과 분쟁을 차치하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제3세계의 경제, 사회적 구조 문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의 현병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한 제3세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특정국가에 대해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분석에 그치지 않고 어느 한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어떻게 관련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점까지 분석하는 데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미국이 對제3세계 정책의 기초를 1945~1950년까지의 전후 초기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검증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 50~60년대 한국전쟁과 신외교전략의 모색과정을 밝히고, 제3부에서는 베트남전쟁을 포함 61~68년까지 미국 민주당정권(케네디~존슨대통령시대)의 對제3세계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69년부터 70년대말까지의 기간이 '반성적 위기의 시대'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제3세계정책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여전히 전쟁 수행능력과 제3세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탐출판사 신간도서

경력 사업 모집

편집부에서 일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두세분을 찾습니다.
편집경험이 2~3년 이상 되고
제작일에 대한 상식도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 마감일 : 1992년 6월 20일 (토)까지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 보내실곳 : 110-010 서울 종로구 신영동 183-1 (주) 탐출판사 총무부

(주)탐출판사

周時經全書 (전6권)

김민수 편

주시경의 업적을 총망라한 대전집. 모든 자료들을 원형대로 영인했으며, 해설을 곁들여 열람을 편하게 했다.

A5 新/4,298면/180,000원
전6권/양장/날권 케이스

국어 어휘론

김종택 저

국어어휘론 교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성을 느낀 저자가 어휘론이 다루지 않으면 안될 고유한 영역을 찾아서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체계화한 책

A5 新/334면/7,000원

국어 의미론

임지룡 저

국내외에서 나온 그 분야의 수많은 논저를 훑어보면서 나름대로 의미론의 폭과 깊이를 체계화한 책 의미론 텍스트!

A5 新/382면/7,500원

(주)탐출판사 〒110-010 서울 종로구 신영동 183-1 ☎ 353-9999/353-9991~7 FAX.353-9990